

1847

그 많은 날 지나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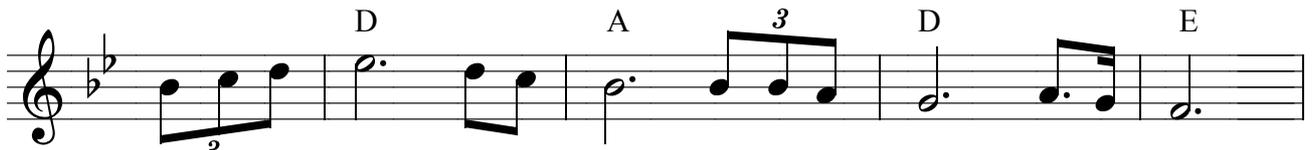
이성우 작사
김영환 작곡



1. 내 주의 일 하 는 데 피곤 함 - 이 많 았 네
 2. 내 주의 일 하 는 데 고 난 또 - 한 많 았 네
 3. 내 주의 일 할 때 에 눈 물 또 - 한 많 았 다



어 떤 때 는 슬 펴 고 어 떤 날 - 은 괴 로 워
 핏 박 받 아 서 럽 고 유 혹 많 - 아 괴 로 워
 고통 받 아 멍 들 고 외 로 워 - 서 슬 펴 네



그 많 은 날 지 나 고 이 제 주 님 보 올 때
 그 날 모 두 지 나 고 이 제 주 님 보 올 때
 그 많 은 날 지 나 고 이 제 주 님 보 올 때



내 피곤 함 아 시 고 나 를 맞 - 아 주 시 네
 겪은 고 생 아 시 고 편 히 쉬 - 게 하 시 네
 나 의 눈 물 씻 기 고 나 를 칭 - 찬 하 시 네